

라캉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를 중심으로 본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체*

이현주** 채인택***

| 목 차 |

I. 서론	이다’를 중심으로 본 북한의 사
II. 이론적 배경	회구조와 주체
III. 라캉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	IV. 결론 및 시사점

| 논문요약 |

라캉의 욕망이론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라캉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를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와 대타자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라캉은 무의식이 대타자의 지식과 그것을 운용하는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모든 욕망은 그것이 무의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것일지라도 대타자의 욕망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대타자의 지식과 그것을 운용하는 사회구조를 고찰함으로써 그 사회의 주체의 특성을 고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지식과 언어체계를 운용하는 권력 틀은 김일성유일사상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유일사상체계를 대타자라 보았다. 경제난에도 흔들림이 없는 북한 체제의 견고함은 외부의 언어를 차단하고 대타자인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중심의 사회구조를 유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74년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공식화하면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뇌수인 수령 절대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체제와 지도자를 위한 헌신적 삶이다. 따라서 주체의 소외라 볼 수 있다.

*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850).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강사 겸 남북한사회심리연구소소장

***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겸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주체가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타자와 자신의 욕망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의 지식과 언어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주체는 무의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대타자의 욕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푸코나 그람시가 제시한 특정 지식과 권력의 형태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사회구조인 대타자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차별화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 주제어: 북한, 사회구조, 대타자, 주체, 자끄 라캉

I. 서론

본 연구는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를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와 대타자를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주체는 주체사상의 주체와 같은 의미이며 마르크스가 역사의 원동력이라 말하였던 인간 주체를 의미한다.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사회 심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민성길·전우택 1996, 35-73; 전우택 1997a, 1-3; 전우택 1997b, 109-167; 민성길 1998, 69-106; 전우택 2000, 179-196; 조정아 외 통일연구원 2010; 이현주 2011a; 이현주 2011b, 291-325; 이현주 2012, 135-171; 이현주 2013, 147-177; 이현주 2015a, 33-52; 이현주 2015b, 77-94; 이현주 2020, 이현주 2021).

한편, 권진관은 라캉의 대타자, 주체 개념, 상징계 등을 활용하여 냉전시대 남북의 국가와 교회가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권진관 2017, 9). 냉전 시기에 남한은 미국이라고 하는 대타자(the Big Other)에 의해서 비주체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분법적 세계관, 구복적 신앙, 근본주의적 배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왜곡된 기독교를 창출시켰다. 반면, 북한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대타자로 삼고 사회를 통합하였다.

또한, 이현주는 북한의 사회구조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이며 이것이 ‘대타

자'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법, 도덕, 규범은 외부로부터 북한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내부의 억압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캉의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주민의 욕망은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의 욕망으로 대체되었으며 니체의 '힘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가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현주 2021, 16). 위의 두 편의 연구는 라캉의 '대타자'를 통해 북한을 사회심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라캉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를 중심으로 북한의 무의식이 형성되는 사회구조를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대타자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의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라캉은 인간의 무의식이 대타자의 권력 틀인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대타자의 지식과 그것을 이용하는 언어적 구조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라는 것이다.

미셸 푸코는 서구적 근대사회 형성과정에서 강조되어 온 이성과 진보의 개념을 역사적 형성물로서 상대화하고, 이성과 진보의 교의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여 왔다는 믿음을 의문시하면서 보편적으로 가정된 이성이 근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지배의 "내면화 과정"이 관련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고든 1991). 미시적 역사연구는 사회사적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구조, 체계 중심적 편향을 극복하고, 일반화되거나 구조화되기 힘든 개별성, 특수성의 문제나 이제까지 역사서술의 주류에서 배제되어 자기 역사를 갖지 못하거나 역사의 주변부로 부차화되어 온 집단과 개인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과거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을 취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안병직 외 1998, 36). 푸코에 의하면 북한은 규칙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행동규범을 정당화 합법화한다. 그리하여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도 체제유지를 위해 복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요인에 의해서 주민이 체제와 정치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내면화과정을 통하여 과잉사회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현주 2013, 150). 본 연구는 푸코나 그람시가 제시한 특정 지식과 권력의 형태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사회구조인 언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차별화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라캉의 개념들은 1930년대 초기 발표 이후 그의 사고가 성숙함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라캉의 개념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언어적 구조주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비교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에 주체 특성에 따른 시기별, 지역별 분석은 이후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캉의 사회심리적 접근

주체(S)에 관한 담론은 플라톤(Platon, B.C. 427-B.C. 347) 때부터 볼 수 있다. 플라톤 이후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주체를 정립하려 했다면 칸트는 오성의 개념으로 나아갔다. 한편 프로이트는 주체를 새롭게 정립하여 초기에는 이원적 체계인 의식,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후기로 가면서 자아, 이드, 초자아의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과 라캉에 의해 정신분석이론은 개인심리학을 벗어나 사회학으로 확대되었다. 융이 무의식을 원형과 신화(상징) 속에서 파악했다면, 라캉은 무의식을 타자와의 관계로 확장시켰다. 또한 헤겔(Hegel, 1770-1831)의 정신현상학(헤겔 1981), 후설(EHusserl, 1859-1938)의 현상학(후설 2004),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의 기획과 투사,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의 자기의식 개념으로 주체의 형성을 설명하였다(이현주 2021, 6).

니체(Nietzsche, 1844-1900)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은 언어로 표현되며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직접 이해하고 접근할 수 없으며 은유와 환유로밖에는 접근할 수 없다 하여 인식에 있어서 언어와 기존 사회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니체 2016). 라캉은 니체의 인식론과 소쉬르의 언어학과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1908-2009)의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의식이 사회구조인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라캉의 주체에 있어서 언어는 가능하며, 그 어떤 인간 주체와도 독립하여 있다. 언어는 자기 자신의 생

을 영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는데, 이때 언어의 역사는 언어를 말하는 존재들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다(핑크 2020, 43). 언어는 의식(consciousness)에 선행하며 말하는 주체로서 우리는 언어 속에서 태어난다. 소쉬르가 개념화한 체계로서의 언어(소쉬르 2006)는 구조라는 레비스트로스의 개념과 라캉의 상징계를 위한 모형을 제공했다(손호머 2020, 67).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에 구조주의의 인식과 방법을 적용하였고, 현대 사상에서 구조주의를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적 도구가 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간은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라고 하였다. 소쉬르는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을 통해 언어 현상을 설명하였다. 촘스키(Noam Chomsky)의 개념 구분에 따르면 빠롤은 개개의 언어수행(performance), 랑그는 그에 앞서서 존재하며 그것을 생성시키는 언어능력(competence)에 해당한다.

라캉은 프로이트(Freud, 1856-1939)가 개척한 개인심리학의 영역을 사회심리학으로 확장시켰다.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유아기 초기의 경험과 외상(trauma)에 대한 기억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표상(representation)을 의미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일반언어학 모델을 적용하여 구조주의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또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레비스트로스 1996)과 언어학자 로만 야콥슨(Jakobson, 1896-1982)의 은유와 환유에 영향을 받아 주체가 언어 안에서 언어를 통해 구성된다는 이론을 형성하였다(이현주 2021, 3).

라캉은 자기인식 과정에 대해 '한 인간이 다른 인간 안에 존재하는가'를 설명한 것은 헤겔의 위대한 통찰이었다고 하였다(손호머 2020, 44). 후설 현상학의 '순수현상'의 성질은 대상이 세상의 사물들처럼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분리되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하이데거는 헤겔과 후설의 인식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항상 특정 상황으로부터 세상을 인식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그 상황을 초월하거나 극복한다. 사르트르의 『자아의 초월성』(1934)을 통해 자기의식과 자아의 구별로 설명된다. 하이데거의 '투사'를 확장하여(하이데거 2012) 사르트르는 자기의식은 본질적으

로 ‘무(nothing)’이며, 주체에 의해 지각된 세계 속의 대상이 ‘자아’라고 보았다. 사르트르의 주체와 자아 사이의 구분은 라캉의 거울단계에서 주체와 자아의 관계에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이현주 2021, 6).

라캉은 주체를 상상계(imagination order), 상징계(symbol order), 실재계(the Real order)를 통해 설명한다(딜런 에반스 1998). 상상계 속의 아기는 어머니와 이차적(二者的) 관계를 맺고 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의 거울단계에서 아기는 동일시 과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 상상계는 의식적, 무의식적 이미지들의 세계이고, 언어 이전의 영역이다. 상상계의 특징은 자아의 영역이며 동일시의 영역이고 환상과 기만의 영역이다. 상상계가 이미지의 차원이라면 상징계는 언어의 차원이다. 상징계는 언어가 등장하는 시기이며 대타자인 아버지와 사회의 법과 질서가 등장한다. 상징계로의 진입은 신체를 기반으로 하던 물질적 관계에서 사회적 교환의 관계 즉 문화 속으로 진입함을 의미하며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상징계가 되면 주체가 언어에 의해 무의식의 상징계의 지배를 받는다. 상징계는 타자성의 영역이고 타자와의 거리가 발생하면서 욕망의 영역이다(핑크 2020, 61).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우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통제력도 갖지 못하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는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다(프로이트 2013; 2014). 그러나 라캉에게 무의식은 의미작용의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무의식은 우리의 통제 너머에 있는 의미작용의 과정이다. 우리가 언어를 말하기보다는 언어가 우리를 통해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캉은 무의식을 타자의 담론이라고 정의한다. 대타자(big other)는 언어, 즉 상징계다. 이 타자는 결코 주체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다(손호머 2020, 73).

상징계가 언어적 세계라면 실재계는 언어를 초월하는 언어 밖의 세계이다. 실재계의 특징은 불가능성이다. 우리의 현실은 언어로 된 세계인데, 실재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러나 사물자체인 실재계는 상징계 안에 구멍을 내고 균열을 내며 들어와 있다. 실재는 언어를 앞서므로, 실존하지 않으며 “탈-존(ex-sists)”한다. 우리의 현실 밖에서 혹은 우리의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한다. 실재는 아직 상징화하지 않은 것으로서, 상징화될 것으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상징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언어로

잡히지 않지만 실재계는 언어인 상징계 안에 들어와 있다(핑크 2020, 63).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실재는 실재를 죽임으로 상징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언제나 실재는 아니다. 그러므로 실재계는 상징계에 균열을 내고 상징계가 불안정하다는 부재성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기능으로써 상징계에 구멍을 내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실재계를 상징계로 바꿈으로써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기표를 통해서 사물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기표와 사물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상징계는 언제나 부재하며 결코 현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불가능성이 실재계의 특징이다(조엘 도르 2021).

우리 존재의 핵심에 욕망이 있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결여(lack)되어 있다. 라캉은 ‘욕망(desire)’과 ‘욕구(need)’를 구분하여 욕망을 요구에서 욕구를 제한 잔여분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너머의 충족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라캉의 주체는 두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는 언어를 통한 소외의 과정에서 구성된다. 그리고 둘째는 욕망의 분리에서 구성된다(손호머 2020, 118). 타자의 욕망의 수수께끼를 대면한 주체는 이 욕망을 말로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이후 타자의 영역에서 기표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을 구성하지만, 결코 주체와 타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표에서 기표로의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주체는 나타나고 사라짐을 반복한다(손호머 2020, 119). 그래서 라캉은 주체를 언어로 정의하지 않는다. ‘주체를 하나의 기표가 또 다른 기표에게 대표하는 그 무엇이다’이다(핑크 2020, 9). 라캉의 자아는 매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주체를 깨닫는다. 주체의 욕망은 매순간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므로 채워질 수 없다. 따라서 순수한 주체의 욕망은 없으며 욕망의 충족도 가능하지 않다. 상징계의 대타자는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 앞으로 동화시킬 수 없다. 절대적 타자성(absolute otherness)이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담론이다. 또한 그들의 욕망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을 내재화하고 변형시킨다. 그리하여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대타자’의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 이때 ‘대타자’는 개인의 욕망을 채워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타자들을 통하여 그 언어를 배워야만 한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가진 언어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주체의 의식적 활동 이전에 타자의 세계로부터 유입되어 각인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언어 장치와 그 효과에 의해서 현실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대타자인 아버지의 이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억압의 언어체계를 의미하므로 ‘대타자’의 욕망의 언어체계는 이미 있어 왔고 그 안에서만 우리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게 된다.

라캉에 의하면 우리는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 욕망은 무엇보다 대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다. 대타자가 생산해내는 상징계는 우리 욕망이 대타자의 욕망과 일치되도록 작동하며 대타자의 욕망을 우리의 주체 안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체를 상징계에 적응하도록 만든다. 지젝(Zizek, 1949-)은 알튀세르의 이론이 주체가 이데올로기에 소외된 점에 집중한 것과 비교하여 라캉의 이론은 주체가 이데올로기 혹은 상징계에서 분리되어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설명한다(지젝 2013). 지젝에 따르면 라캉의 주체 이론의 핵심이 무의식적 욕망의 주체가 이데올로기적 사회구조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라캉이 주체를 어떤 본질적인 실체나 주체의 자유를 단순히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오히려 주체가 상징계에서 기표에 의해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강조한다(최원 2016). 주체가 상징계라는 구조 속에서 출현할 때 불가피하게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지젝 2017).

2. 라캉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라캉은 무의식이 어떤 심리적인 것이나 의식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보다 더 근원적이라고 보았다.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한 ‘야생의 사고’를 인용하였다(레비-스트로스 2012). ‘야생의 사고’와 ‘야생의 도덕’은 무의식의 사고를 말한다. 주체의 의식적 활동 이전에 타자의 세계로부터 유입되어 각인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언어 장치와 그 효과를 가리킨다. 이 두 가지는 언어란 현실원칙에 지배를 받는 것으로서 단순한 언어체계를 가리키기보다는 대타자인 아버지의 이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억압의 언어체계를 의미한다. 인간의 실질적 경험 이전에 언어적 구조가 틀을 만든다. 그 틀은 인간의

개인적 경험들과 그것을 관통하는 개별적 흐름을 생산하는 무의식의 일반 구조이다. 이로써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란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논의를 도출하게 된다. 모든 욕망은 그것이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무의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것이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언어적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대타자의 권력 틀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지식과 그것을 운용하는 언어적 구조의 효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무의식의 장소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대타자의 사고가 바로 야생의 사고이다. 그것은 인간 문명의 토대에서 작동하는 무의식의 언어 틀이다(백상현 2020, 97).

라캉은 무의식이 존재하는 의미화 메커니즘과 의식, 사고, 행동이 조직되는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은 표상(representation)을 의미했던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이드(Id)라 불리는 성적이고 생물학적인 충동을 무의식의 영역에서 추방하였다. 결국 초자아도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자아(Ego)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조절하는 매개가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오인하는 이미지일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의식은 선존재론적(pre-ontological)이다(손호머 2020, 107). 그러므로 라캉의 무의식은 상징계가 주체에 미치는 효과(effect)-충격(impact)이다. 라캉에게 언어는 글로 쓰인 텍스트나 단순히 발화된 말이 아니다. 그 외 차별관계에 근거한 의미화 체계 전체를 가리킨다. 끝으로, 무의식은 그것이 관독, 또는 암호화와 해독을 포함한다. 의미화 과정이라는 면에서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손호머 2020, 106-109).

따라서 '언어는 무의식의 집이다'라고 하였다. 즉 그 사회의 기표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의해 종속될 수밖에 없다. 언어가 없다면 무의식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의식적인 것은 '타자(other)'의 담론이라 하며 소타자와 대타자를 말한다(핑크 2020, 113). 상상계의 타자는 소문자로 된 '타자(other)'를 가리킨다. 이 타자는 통일되고 통합되고 일관된 자아로써 이 자아는 우리 자신의 반영들로서 우리에게 유아가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가정하는 타자이며 어머니이다. 유아는 자신을 타자의 유일한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처음 만나는 타자는 부모의 욕망이다. 그들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성공적이고 충족된 인생에 대한 그들의 희망과 소원을 불어넣으며 자

신들의 모든 충족되지 않은 꿈과 열망을 전가한다. 타자의 이러한 무의식적인 소원과 욕망들은 언어-담론을 통해 우리들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언어에 의해 욕망은 항상 형상화된다(손호머 2020, 113).

라캉에 따르면 인간이 이데올로기적 사회구조 속에 태어날 때 불가피하게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면서 무의식이 발생한다. 주체와 대타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1단계는 아파니스시스(aphanisis, 그리스어로 소멸) 소실(fading), 또는 소외라고 불리는데, 이 소외는 주체가 상징계인 대타자 속에서 태어나 불가피하게 기표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라캉은 주체를 ‘기표의 효과’라고 정의한다. 근본적으로 말하고 말해지는, 철저히 기표에 의존하는 존재이자 기표에 의해 비로소 생겨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표 이전에 주체는 절대적인 무(無)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타자의 장소에서 생겨난 기표는 아직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부터 주체를 출현시키지만 이는 주체를 동결시키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존재하게 되어 말하게 될 것은 사라지고 단지 기표가 되어버린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주체와 대타자와의 관계의 2단계에서 라캉이 ‘분리(separation)’라고 명명하는 대타자와 주체 사이의 단절과 갈등적 관계가 나타난다. 소외가 대타자의 기표의 사슬 속에 주체가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라면 분리는 이 기표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는 주체와 대타자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비틀어지는 것인데 이 뒤틀기는 대타자에 대한 ‘무의식의 침범을 유발하는 뒤틀기’이다. 즉 분리는 주체가 대타자 속에서 소외되는 일방적 관계가 뒤틀어져 역전이 생겨남을 의미한다(지젝 2007).

라캉은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가진 언어를 통해 표현되면서 이 무의식적 욕망은 대타자-상징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개인의 욕망으로 나타나게 된다. 내 뒤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신’이나, 내게 명령하며 내 인생을 바치도록 만드는 실제의 개인이나 대의(자유, 공산주의, 민족)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구조 내의 개인은 무의식 체계에서 언어구조를 형성할 때 바로 대타자의 권력 틀에 의해 욕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욕망인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욕망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캉은 주체를 정의하지 않았다. 끊임 없이 변화하는 욕망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짐을 반복할 뿐이다. 붙잡을 수

없는 욕망처럼 라캉의 주체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단지 부정을 통하여 정의될 뿐이다. 언어적 구조인 상징계의 무의식을 통해서 나타났다 사라짐을 반복한다. 타자의 담론인 무의식은 결국 대타자의 욕망을 내재화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라캉의 무의식과 대타자의 욕망



3. 분석틀: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체

외부의 언어와 문화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북한은 어느 사회보다 언어가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있었던 ‘김일성 민족’의 공식적 출현은 언어가 문화의 산물임과 동시에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강제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오일환 2020, 358; 이현주 2020b, 93). 김일성 일가 이외의 정치세력이 모두 사라지고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혁명집단화시킨 이후 북한의 언어는 지도자의 교시로 통일되어 있다. 북한의 주체화는 ‘김일성 민족의 주체화’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처음으로 ‘김일성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후 평양방송이 1995년 1월 18일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라 하고, 현대 ‘우리나라는 수령 김일성이 세운 김일성 조선’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 3월 27일 『로동신문』에서 기사화했다. 조선중앙방송에서는 1995년 4월 14일 ‘김일성 민족’을 강조하여 언급했다. 또한, 김일성 2주기인 1996년 7월 8일에

북한은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결정서를 제출했다. ‘주체연호’를 김일성의 출생연도(1912)를 원년으로 하여 공식 제정했다(오일환 2020, 358). 북한은 수령과 아버지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대가족’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아버지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철저히 교육되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성격은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체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중·동구 국가들도 최고지도자(The Great Leader,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어머니 당, 아버지수령) 등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와 교육기관을 보면 언어와 시간(주체연호)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언론은 지도자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67조는 “국민은 출판·언론·집회·결사와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언론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 그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때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1995년 11월 언론매체에 보낸 친필 서한을 통해 사상 교양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체제결속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신문은 주체 언론의 관점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노동계급성과 당성의 원칙, 인민성과 대중성의 원칙, 진실성과 전투성”을 제시한다. 북한의 신문은 노동당·정권기관·사회단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이다. ‘노동신문’은 당의 견해와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당중앙위 기관지이다. ‘노동신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사는 사실과 논평으로 사실은 당의 지령이다. 논평은 정세에 관한 당의 입장으로 모든 신문과 방송은 노동신문을 기준으로 편집 방향이 결정된다. 노동신문의 1면은 거의 매일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으로 채워지고 있다. 조선중앙TV나 조선중앙방송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최우선으로 내보내고 있다.

‘김일성 민족의 주체화’는 영유아기부터 시작된다. 유치원 교육은 탁아소 교육보다 한 단계 높여 집단 학습시간이 많아진다. 주로 유희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활동은 운동, 노래, 춤, 놀이 등으로 구분되고 그밖에 시청각

교육, 집단놀이, 동화, 동시, 자연관찰, 명소방문 등 다양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김일성에 대한 찬양, 대남·대미 적개심 고취, 집단주의 의식과 태도 함양, 호전적 투쟁 의식 고취 등이 되고 있다. 교육 내용을 보면 2년간에 걸쳐 총 8과목 1,240시간을 교육하고 있는데 김일성 수령 원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80시간, 친애하는 수령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80시간, 조선어 280시간, 산수 200시간, 노래 부르기 160시간, 무용 120시간, 도화와 공작 160시간, 체육 160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교육기관인 인민학교 교육 내용 중 일반교육의 경우 모두 9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일성 수령 원수님 어린 시절 78시간, 경애하는 수령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78시간, 국어 1068시간, 수학 982시간, 자연 148시간, 체육 456시간, 음악 304시간, 도화·공작 304시간, 공산주의 도덕 15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통일교육원 2017). 최고의 교육기관인 김일성 종합대학의 경우 김일성 주체사상, 혁명전통, 노동정책사, 당정책, 조선 노동투쟁사, 세계노동사, 김정일 문헌, 정치경제학 등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전 과목의 40%를 사상교육에 배당하고 있다(이현주 2021, 12).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유아기부터 철저한 '김일성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다. 북한의 교육 목표는 인민대중이 수령과 당에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하여 통일체를 이루어서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생명이 되기 위한 것이다. 상시화된 주체의 소외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목표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사회의 전체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 계급화하고,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하나로 결합된 혁명집단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되기 위한 주체의 소외가 일상화되어 버린 것이다. '김일성 민족 주체화'이다.

그 배후는 전쟁 이후 진행된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깊다.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형성의 외부 요인을 6·25 전쟁과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내부의 요인은 김일성 유일지도체계의 수립일 것이다. 김일성 유일지도체계의 결정적인 사건은 1958년 '8월 종파사건'과 1967년 '갑산파사건'이었다. 북한에서 해방 이후 다양했던 정치권력이 김일성의 백두혈통 이외에는 1960년대 후반까지 모두 숙청되었다. '8월 종파사건'의 발생 경위를 보면 김일성은 1956년 6-7월 소련과 동유럽 방문하게 된

다. 귀국 후 김일성은 당내 위기를 극복한 후 다시 1957년 11월 소련과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당내 분위기는 ‘반당종파분자’와 ‘반혁명분자’ 숙청에 강경하였다. 김일성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주된 위협인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에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지킨다’는 것과 ‘내부의 적에 대한 투쟁’, ‘프롤레타리아독제’의 옹호를 강조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1967년 노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당 간부들에게 『목민심서』를 읽게 하고 실행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등 부르주아 사상과 수정주의, 봉건유교 사상을 퍼뜨렸다고 비난을 받고 숙청당했다. ‘갑산파’가 숙청된 1967년 이후 북한 사회주의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지배체제로 변형되어 3대의 세습에 이르게 되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사상은 정치이데올로기로써 적합성을 잃게 되고 만다. 새로운 정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구조로 변화되어갔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가계의 세습을 위하여 형성되어갔으며 북한의 집단정체성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이현주 2020a, 311).

초기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북한은 70년간 계층화·계급화되었으며 그 최상위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 전체 인민이 ‘사회정치적생명’으로 ‘김일성 민족 주체화’를 통해 유지되는 체제이다. 이를 위한 감시와 처벌이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 인민은 원칙적으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며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외부인은 체제를 지지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긍정적 외부인과 적대적 외부인으로 나뉜다. 외부인과의 소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지도자에게서 사회정치적생명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만 인격적인 존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북한의 내부 원진자료를 통해 확인된 인간중심 개념에 의하면(이현주 2020a, 111)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뇌수’는 지도자라는 점에서 지도자는 영원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이다(김병로 2000, 113; 이현주 2020b, 107). 새로운 신정체제 전체주의의 탄생이다. 상징계의 ‘대타자’는 사회의 담론이자 욕망이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내재화하고 변형시키는 것, 주체성 앞으로 동화시킬 수 없는 절대적 타자성이다. 김일성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된 1970년대 이후 지도자의 언어는 사회의 기표가 되었다. 주체의 언어가 기표인 지도자의 언어에 의해 끊임없이 검열되고 있다.

Ⅲ. 라캉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를 중심으로 본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체

언어는 인간 주체와도 독립하여 있다. 또한, 말하는 주체들은 언어를 단순히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인 언어에 의해 이용된다. 언어는 자기 자신의 생을 영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는데, 이때 언어의 역사는 언어를 말하는 존재들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다(핑크 2020, 43). 따라서 북한주민의 실질적 경험 이전에 하나의 언어적 구조가 틀을 만든다. 그 틀은 북한주민의 개인적 경험들과 무의식의 일반구조이다. 또한, 모든 욕망은 그것이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무의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대타자의 욕망이 된다. 무의식의 언어적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대타자의 권력 틀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며, 대타자의 지식과 그것을 운용하는 언어적 구조의 효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권력과 지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국가 체계는 지도자 중심의 언어와 김일성유일사상체계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70년 역사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토지개혁과 ‘8월 종파사건’과 ‘갑산파사건’ 등을 거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는 김일성유일지배체제로 변형되었다. 김일성 일가의 백두혈통 외의 정치세력이 모두 사라진 이후,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목표로 사상혁명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고, 전체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혁명집단화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을 유일한 수령으로 내세워 개인숭배를 지향하고 수령의 신격화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중국과 소련 사이에는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에 의한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일어났다. 김일성은 이에 중국도 소련도 아닌 이른바 북한만의 독자노선 주장이 필요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에 이르러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및 노동계급화할 수 있었다(이현주 2020a, 300). 따라서, 북한의 주체가 형성되는 기표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이다. 그 결과 형성되는 주체는 ‘김일성 민족 주체화’이다.

코제브에 의한 헤겔의 해석에 의하면 자기(self-hood)는 자기번성/반영(self-reflection)적 활동을 통해 자기의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출현한다. 인간 주체가 부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유일성을 의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인간 주체로서 인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주인/노예’의 변증법이라 알려져 있다. 헤겔은 자기 안의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소외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인간소외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라캉은 헤겔의 개념은 받아들였으나 소외는 필연적이고 극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1950년대에 라캉은 소외와 관련된 주체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타자 안에서 유아가 자신에 대해 오인(mis-recognition)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외와 상징계와 언어 속으로 편입될 때 소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소외된 주체는 기표의 주체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징계와 언어에 의해 결정되는 주체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균열되고 분열되어 있다(손호머 2020, 44). 소외는 주체가 상징계인 대타자 속에서 태어나 불가피하게 기표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외는 자아 형성이 초래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동시에 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상징계와 언어 속으로 편입될 때 발생하는 소외는 일시적이며 주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구조적으로 분열되고 균열되어 있는 소외된 주체는 기표의 주체이다. 그러나 주체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소외와 다르게 복한 주체의 소외는 ‘김일성 민족의 주체화’라는 태생적인 차이가 있다. 라캉의 주체는 기표에 의존하는 존재이자 기표에 의해 비로소 생겨나는 존재다. 기표 이전에 주체는 절대적인 무(無)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타자의 장소에서 생겨난 기표는 아직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부터 주체를 출현시키지만 이는 주체를 동결시키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존재하게 되어 말하게 될 것은 사라지고 단지 기표가 되어버린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가진 언어를 통해 표현되면서 이 무의식적 욕망은 대타자-상징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개인의 욕망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의 상징적 가치와 규칙들에는 관습이나 규범처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하지만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는 규칙도 존재한다. 따라서 상징계에서는 대타자가 어떤 단일한 대행자로 인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라캉은

개인적 욕망이 곧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대타자’의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캉은 주체를 ‘기표의 효과’라고 정의한다. 근본적으로 말하고 말해지는, 철저히 기표에 의존하는 존재이자 기표에 의해 비로소 생겨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표가 또 다른 기표에게 대표하는 그 무엇’인 주체는 북한에서 지도자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면서 이 무의식적 욕망은 대타자-상징계 간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욕망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구조 내의 개인은 무의식 체계에서 언어구조를 형성할 때 바로 대타자의 권력 틀에 의해 욕망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욕망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라캉의 주체는 변화하는 욕망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짐을 반복할 뿐이다. 붙잡을 수 없는 욕망처럼 라캉의 주체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단지 부정을 통하여 정의될 뿐이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의 욕망은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의 욕망으로 대체되어 상징계의 ‘대타자’인 김일성유일사상체계에 의하여 자신의 욕망을 내재화하고 변형시키게 된다. 김일성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된 1970년대 이후 지도자의 언어는 사회의 기표가 되어 끊임없이 주체의 주체화를 검열하고 ‘김일성 민족의 주체화’를 생성하고 있다.

북한의 대타자인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의 기표는 지도자의 언어이다. 북한에서 인격적이고 모범적인 삶의 방식은 지도자가 인정하는 ‘사회정치적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외의 삶의 방식은 처벌 또는 계도의 대상이다. 1974년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공식화하면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뇌수인 수령 절대주의가 시작되었다. 수령은 완전한 신적인 존재자이며 주민들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이현주 2020b, 110). 대타자의 기표에 의해 ‘사회정치적생명’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주체의 소외를 의미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주체 개인의 삶이 아닌 대타자를 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표화된 상태가 소외라면 주체화는 기표와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주체화는 내가 나 자신의 원인으로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즉, 체제가 나의 존재원인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기표와 분리된 상태는 ‘사회정치적생명’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배반이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처벌과 계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주체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 주체의 주체화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이탈한 경우라도 반드시 주체화에 성공하였다 볼 수는 없다.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지도자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의식에서 여전히 지도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현주 2013, 150). 또한, 새로운 사회구조와 언어를 통해서 또 다른 대타자가 등장하고 불안정한 실존의 상황에서 거짓된 기표에 사로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시적 주체의 소외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게 한다. 첫째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기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체가 자발적으로 기표의 주체가 되는 이유는 6·25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전시상황 때문이라 볼 수 있다(김병로 2016, 217). 국가의 붕괴에 따라 위협에 당면한 주체의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둘째는 사회 전체의 상시화된 기만과 폭력에 의한 주체의 소외이다. 이 경우도 불안한 주체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소외를 화두로 삼았던 마르크스 이론을 현실에 맞게 변형시켰다고 주장하는 지상낙원 북한에서는 결국 주체의 소외가 상시화되어 있다.

북한 주체의 언어적 구조는 무의식의 일반구조와 다름없다. 상징계에서 북한 체제에 의한 타자의 언어와 교육을 통해 점차 무의식 속에서 욕망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주체의 욕망은 사회구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김일성 민족’이라는 대타자의 권력 틀을 통해서 무의식의 언어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주체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무의식의 언어-틀이다. 따라서 ‘김일성 민족의 주체화’로써 무의식, 즉 대타자의 욕망이 작동하게 되고 이것이 북한 체제 내부에서 개개인의 욕망을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주체는 ‘김일성 민족의 주체화’라는 무의식의 언어-틀로 고착화되어 욕망을 지배하게 되고, 따라서 주체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과 일치하게 된다. ‘김일성 민족’이라는 무의식의 작동을 통해서 북한 체제 내부의 개인적 욕망은 존재하지 않는 단일적 구조, 즉 대타자의 욕망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무의식에 의한 대타자의 담론을 통해 온 사회를 ‘김일성 민족의 주체화’ 이고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혁명집단화에 성공하였다. 이는 결국 ‘김일성 민

족’이라는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타자의 욕망을 주체의 욕망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로써 집단적 사고와 언어는 문화의 산물로서 동시에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강제하는 효과를 보여준 것이었다. 라캉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를 중심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체는 <그림 2>와 같다.

<그림2> 라캉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로 보는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체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라캉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타자인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주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구조 내의 개인은 무의식 체계에서 언어구조를 형성할 때 바로 대타자의 권력 틀에 의해 욕망을 형성하게 된다. 북한의 사회구조가 김일성유일사상체계를 중심으로 확립된 지도자의 언어는 북한의 기표가 되었다.

북한 주체의 언어적 구조는 무의식의 일반구조와 다르지 않다. 상징계에서 북한 체제에 의한 타자의 언어와 교육을 통해 점차 무의식 속에서 욕망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김일성 민족’이라는 대타자의 권력 틀을 통해서 무의식의 언어구조가 형성된다. 북한주민의 주체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무의식의 언어-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 민족의 주체화’로써 무의식, 즉 대타자의 욕망이 작동하게 되고 이것이 북한 체제 내부에서 개개인의 욕망을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주체는 ‘김일성 민족의 주체화’라는 무의식의 언어-틀로 고착화되어 욕망을 지배하게 되고, 따라서 주체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과 일치하게 된다. ‘김일성 민족’이라는 무의식의 작동을 통해서 북한 체제 내부의 개인적 욕망은 존재하지 않는 단일적 구조, 즉 대타자의 욕망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무의식에 의한 대타자의 담론을 통해 온 사회를 ‘김일성 민족의 주체화’이고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혁명집단화에 성공하였다. 이는 결국 ‘김일성 민족’이라는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타자의 욕망을 주체의 욕망으로 대체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주인인 인간이 자본에 의해 소외됨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 이론을 현실에 맞게 변형시킨 지상낙원 북한에서는 주체의 소외가 상시화되고 있다. 북한의 주체는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 종교적 사명감을 강요당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는 이러한 ‘사회정치적생명’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북한은 70년간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한 주체의 불가피한 선택이 종교화로 이어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대시대 이후 종교화된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푸코나 그람시가 제시한 특정 지식과 권력의 형태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사회구조인 대타자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차별화된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북한의 담론을 고착화된 것으로 접근하고 있어 시계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원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진관 (2017). “냉전과 한국 개신교-냉정 체제로 구조화된 한국 개신교에 대한 한 분석.” 『신학과 사회』, 제31권, 2호, pp. 9-43.
- 김병로 (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연구원.
- _____ (2000). 『북한 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통일연구원.
- 딜런 에반스 (1998). 『라캉 정신분석 사전』. 김종주 외 역. 인간사랑.
- 레비-스트로스 (1996). 『야생의사고』. 안정남 역. 한길사.
- _____ (2012). 『슬픈 열대』. 박옥출 역. 한길사.
- 마르틴 하이데거 (2012). 『존재와 시간』. 전양범 역. 동서문화사.
- 민성길 (1998).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주민의 문화 충격 및 적응 문제.” 『통일이 후』, 제1권, pp. 69-106.
- 민성길·전우택 (1995).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심포지엄 발표논문, pp. 39-73.
- 백상현 (2020). 『라캉의 정치학- 세미나11강해』. 에디투스.
- 브루스 핑크 (2020). 『라캉의 주체』. 이성민 역. 도서출판b.
- 손호머 (2020). 『라캉읽기』. 김서영 역. 은행나무.
- 슬라보예 지젝 (2007). 『How To Read 라캉』. 박정수 역. 웅진지식하우스.
- _____ (2013).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새물결.
- _____ (2017). 『자끄 라캉과 정신분석의 이면』. 라캉분석치료연구소 역. 인간사랑.
- 안병직 외 (1998).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 오일환 (2020). 『통일·북한의 문화적 이해: 북한의 신앙 변화와 통일 한국』. 카오스북.
- 이현주 (2011a). “북한의 집단주의 특성요인과 심리적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b). “북한 집단주의 정치사회화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pp. 291-325.
- _____ (2012).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 충성도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pp. 135-171.
- _____ (2013). “북한주민의 정치적 분리와 불안.” 『북한연구학회』, 제17권, 1호, pp. 144-177.
- _____ (2015a).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에 대한 조사연구.” 2015북한연구학회동계학술회의 자료집, pp. 33-52.
- _____ (2015b). “탈북청소년과 미래세대의 통합.” 제11회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자

- 료집. DMZ학술원, pp. 77-94.
- _____ (2020a). 『통일·북한의 문화적 이해: 북한의 집단정체성』. 카오스북.
- _____ (2020b). “북한정치의 종교적 특성과 ‘인간중심’ 개념.”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6. No. 2, pp. 93-115.
- _____ (2021). “북한의 사회구조와 라캉의 대타자.”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전우택 (1997a).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제36권. 제1호, pp. 1-3.
- _____ (1997b).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pp. 106-167.
- _____ (2000). “집단기억 현상을 통하여 본 북한 사회 이해.” 『사회정신의학』. 제5권. 제2호, pp. 179-196.
- 전우택·민성길 (1996).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도서출판오름, pp. 35-38.
- 조엘 도르 (2021). 『라캉 세미나. 에크리독해I』. 홍준기·강웅섭 역. 눈꽃출판그룹.
- 조정아 외 (2010).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 지그문트 프로이트 (2013). 『토템과 터부: 미개인과 신경증 환자의 정신생활에서 몇 가지 일치점』. 강영계 역. 지식올만드는지식, pp. 17-82.
- _____ (2014).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주식회사열린책들.
- 최원 (2016). 『라캉 또는 알튀세르』. 난장.
- 콜린 고든 (1991). 『권력과 지식』. 홍성민 역. 나남출판.
- 통일교육원 (2017). 『2017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 페르디낭 드 소쉬르 (2006).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역. 민음사.
- 프리드리히 니체 (2016).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김정현 역. 책세상.
- 헤겔 (1981). 『세계사상교양전집철학강요』. 서동익 역. 을유문화사.
- 후설 (2004). 『현상학과 해석학』. 이남인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 논문투고일 : 2022년 02월 07일 |

| 논문심사일 : 2022년 02월 23일 |

| 게재확정일 : 2022년 03월 20일 |

| ABSTRACT |

**North Korea’s Social Structure and Subject,
Focusing on Lacan’s ‘The unconscious is the
Discourse of Others’**

Lee, Hyun-Ju

(North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Chae, Intaek

(The Joong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behavioral patterns of North Koreans through Lacan’s theory of desire. For this purpose, I tried to examine the North Korean subject and the big Other, focusing on Lacan’s ‘The unconscious is the discourse of the Other’. Lacan believed that the unconscious is formed by the knowledge of the big Other and the social and linguistic structures that operated it. Therefore, in the sense that all desires are formed by the unconscious, even if they are personal, they become the desires of others. Therefore, we present a methodology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ubject by examining the knowledge of the big Other and the linguistic structure that operates it.

The power framework that operates the knowledge and language system of North Korea can be said to be the Kim Il-sung unique ideology system. Therefore, the North Korean leader can be seen as Lacan’s big Other. The robustness of the North Korean system, which is not shaken by economic difficulties, can be seen as a result of blocking external language and maintaining a social structure centered on the big Other.

In 1974, when Kim Jong-il formalized the Juche ideology as Kim Il-sungism, the absolutism of the Suryong, the brainchild of socio-political living beings, began. 'socio-political life' is a life devoted to the system and leader, not the subject. Therefore, it can be seen as alienation of the subject. In order to escape from the alienation of the subject, it is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big Other and one's own desires. However, while the knowledge and language of North Korea's Kim Il-sung unique ideology system is maintained, the subject can not escape from the desire of the other, which is formed by the unconscious.

This study approaches from a differentiated perspective by examining the way the specific forms of knowledge and power suggested by Foucault and Gramsci oper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focusing o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Great Other.

- Key words: North Korea, Social Structure, The Big Other, The Subject, Jacques Lacan